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4월5일(목)에 교회에서 만남시다

- 푸른동산 가꾸기, 교구일꾼 수련회 등 행사 많아 -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교회 인접 '한티공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식목일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산림청(청장 신순우 집사)과 강남구청(구청장 권문용)의 지원으로 4월5일 오전10시에 한티공원에서 경건회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나무심기는 임업연구원 「최명섭」박사의 도움으로 산림청에서 지원된 꽃나무 등의 묘목을 우리성도들의 손으로 직접 식재하게 된다. 복장은 운동화등 간소복

차림으로 참가하면 된다. 식목에 필요한 기구(삽,괘이 등)는 교회에서 준비한다.

식복행사 후 스테반회에서 준비한 중식을 만나 홀에서 갖게 되며 중식후 2001년도 교구일꾼 수련회가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전 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등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컴퓨터실 열린다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달로 복음증거의 기회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e-mail을 통해 세계는 좁아졌다. 우리교회는 변하는 사회에 대처해 가는 일환으로 컴퓨터 교실을 열고 주중에 성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주부대학, 경로대학 특활시간에 컴퓨터 교육시간이 배정되어 앞으로는 다락방 전달사항도 e-mail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컴퓨터실은 주일에는 교회학교 행정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각 부서 유인물 처리를 이곳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게 된다. 607호실에 컴퓨터 24대가 설치되었다. 이는 전기집 장로가 14대를 기증해주었고 교회가 마련한 것이다. 전산실 개소식은 4월11일(수) 오후1시에 갖는다.

교회설립 1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 개최

교회설립 1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임훈규 장로)는 오는 5월2일(수)부터 7월4일(수)까지 사진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성도들이 소장하고 있는 서울교회 관련사진은 물론이고 개인 또는 가족의 신앙관련 사진 그리고 자랑할만한 사진들을 출품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을 출품할 경우 사진 뒤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사진설명을 붙여 사무국에 4월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진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비전 홀(802호)은 회의실로

전망 좋은 비전 홀이 각종회의를 위한 방으로 사용케 된다. 5명 이상 50명까지의 인원으로 회의를 하게 될 부서는 사전에 사무국에 신청하면 신청순서에 의해 사용이 허락된다.

길 잃은 양에게 바른길 제시를

- 각종 상담실 문열어 -

법률, 세무, 병무, 의료, 교육, 가정, 결혼 등 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주일 12시 30분부터 오후2시 사이에 302호부터 308호를 찾아가면 전문인의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담실 개소식은 이번 수요일(4월4일)오후 1시에 현장에서 갖는다.

일천만명 서명 돌파 -탈북난민 보호 UN청원 운동-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한 UN청원 운동이 시작된지 2년만에 일천만명 서명을 지난28일 마침내 달성했다. 지난해 8월 800만명 달성 기념 감사예배를 드린지 7개월 동안에 200만명의 서명을 추가로 받아낸 것이다.

이는 세계 서명사상 최고의 기록으로 남겨질 것이다. 아직도 굶주림과 핍박속에서 견디다 못해 탈북하는 이들의 수는 계속 늘어만 가고있어 UN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며 한국교회가 이제는 행동으로 열매를 구해야할 때가 된 것이다.

4월 행사표

- 4.4(수) 상담실 개소식
- 4.5(목) 56주년 식목일 기념 식수
2001년도 교구일꾼 수련회
- 4.9(일) 제19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9학기 서울성경대학 개강
- 4.10(화) 서울 주부대학 개강
- 4.11(수) 학습, 세례식 / 「전산실」개소식
- 4.12(목) 살롬 경로대학 개강
강남노회 아동부 연합회
- 4.15(주) 부활절
- 4.24(화) 강남 「목사회」
- 4.26(목) 농어촌 교회지도자 초청 간담회
- 4.28(토) 육사 세례식 /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 4.29(주) 새가족 환영회

지난주 이모저모



고3을 위한 기도결연 - 그들에게 힘을 주소서.



3월 새 가족 환영회 -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은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괴로움의 종교

이사야서 강해

이사야(43:22 - 28)



이종운 목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인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큰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괴로움'이라는 말이 5번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22절), "너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23절),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나니"(24절).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괴로워하였습니다(22절).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 자신과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1.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들의 괴로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괴로웠던 이유는 그들의 종교 행사가 감사가 없이 의식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단 마음이 없이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헌금도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므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도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마 22:37).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결과만 얻으려고 몸만 나와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그를 섬겨야 그가 섬겨집니다. 심령을 다한다는 말은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얼마나 전심을

다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괴로웠습니다. 남의 빛만 지고 있는 사람은 괴로울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언지 모를 불안의 그림자가 늘 깃들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혹한 주인처럼 여기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마 25:24 - 25).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고, 말씀이 마음에 무겁게 여겨집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갖지 못하므로 신앙 생활이 괴롭습니다. 외식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죄를 한 가지 더할 뿐입니다. 죄는 언제나 괴로움을 줍니다. 외식을 떠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로 주님을 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밀접한 교통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 ①주님께 순종하면 쉼을 얻습니다. (마 11:28 - 29)
- ②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요 14:21)
- ③주님께 순종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요 15:10 - 11, 시 40:8, 시 19:8)
- ④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없어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요 7:17)
- ⑤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일 5:14)

2. 외식하는 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움을 당하신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흠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24절).

외식하는 종교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원하시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없이 몸만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 사랑이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욥 13:15).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3. 이스라엘의 죄를 악화시킨 것

유대인들은 불순종의 자손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자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 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스 9:7).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범죄한 가증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순종의 학자였습니다. "너의 교사가 나를 배반하였나니"(27절). 교사가 하나님을 배역했고 백성들은 그들의 불순종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교회와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에게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 거리가 되게 하리라"(28절). 성소의 어른들은 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부리므로 제사장들이 욕을 먹고 교회의 존귀는 티끌 속에 묻혀 짓밟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 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2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유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한 것으로 괴롭지 않도록 용서합니다. 구름이 햇빛에 의해서 사라지듯(사 44:22) 빛이 탕감되어 그 빛이 다시 괴롭히지 않게 하여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해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우리 안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의 공훈, 그의 약속, 특히 그의 아들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26절). 우리의 공로로 구원이 왔다면 그 공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변론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우리의 죄는 다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 당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 3 기도 결연회를 마치고

손재영(고등부 교사)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것이 비단 고 3 시절만의 필요는 아니겠지요. 언제나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로 살아야하겠지만, 이 시절의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진심어린 기도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힘이 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의 진심, 나를 용납해주는 한 사람의 눈물이 없다면 느껴서이지요. 그럴 때 구석에 몰린 아이들의 방황은 시작됩니다. 혼자 어떻게든 이겨 보려는 힘겨운 노력, 그것마저도 거절되었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험생활에 있어서 끝없이 계속되는 학업의 부담과,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온갖 비교의식에 눌릴 데로 눌린 지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의식 속으로, 이들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시절의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힘과 위로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이들에게는 함께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이들의 외로운 시절, 기도의 친구가 되어주신 여러 선배님들, 또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수험생활의 터널을 잘 건널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터널을 지났을 때,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언젠가 이 아이들이 든든한 기도의 일꾼이 되는 날 크게 웃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마음놓고 이 아이들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날, '내가 참 잘했다'고 가슴 시원해하실 날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70인 전도대 보고 - ⑤

유근중 집사(2교구)

토요일 오후 교회 6층 한 모퉁이 70인 전도대 기도 집회실-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큰 모임이 있습니다.

뜨거운 결심과 정성어린 마음으로 시작한 전도-교회부근 아파트, 대치역 길목마다 주님을 영접 못한 생명을 위해 전도지를 전하며 "예수님 믿으세요. 서울교회에 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라고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혼서에 나오는 니느웨의 비참한 멸망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교회 가정 자녀 등 모든 면에서 얼마나 은혜와 덕이 되고 있는지... 노방전도를 통해 깊은 회개와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연약한 내 모습 속에 주님의 크신 힘과 능력의 역사를 느낍니다. 큰 기쁨이 넘치는 생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마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길, 우리 함께 전도합니다. 큰 기쁨을 얻으실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손뼉을 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편지왔어요

오세인 (대학부)



그 동안 목사님, 장로님, 서울교회성도님 안녕하십니까? 금년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어요.

그 동안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시간들을 흰 눈으로 다 덮어버리고 하얀 종이 위에 다시 태어나 나 자신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부모님과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군에 오기 전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막상 입대하여 훈련을 받다보니 사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여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교육을 받노라면 나는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기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종종 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과 생활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들에 더욱 감사하곤 합니다. 소리치는 교관과 조교들의 가르침들이 힘들고 피로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의 등뒤에서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대한의 남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목사님과 비전2020 위원들과 같이 이곳에 오셔서 세례를 집행하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큰 위로를 받으며, 특히 입대전 군 파송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해주시던 목사님의 기도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귀에 동상 걸린 것만 빼고 모든 힘든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는 통신전자학교에서 학교에서 전공하던 전자계산운용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4월 둘째 주면 모든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가까운 곳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로 왔어요 - 6살 아들이 전가족을 전도했어요

홍승배 성도, 박종녀 집사(1교구) - 문기(12세) 홍영기(10세)

▶ 6살 짜리 아들로 인해 온 가족이 처음으로 교회등록을 하게 되셨다구요?

네, 저희 양가는 본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문기가 6살 때 집 앞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취학 전이었지만 너무 열정적이고 1년에 2회 있는 특별새벽기도회에도 나가고 집에 오면 혼자 성경을 쭉그리고 앉아 읽곤 하더라고요. 성경대로 산다면 예수님은 성전의 장사꾼들 이외에는 화를 내지 않으셨다면서 절대 화도 안내고 친구가 매리면 맞고 오는 등 도무지 융통성이 없는 생활이 안쓰러워서 성경을 뺏기도 했죠. 교회에서는 그를 사무엘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아들이 찬양하러 무대에 신다기에 아들 보러 교회에 들렀다가 교회에 다니며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문기와 함께 다락방 예배에 참석하면 다른 아이들은 나가 노는데 문기는 어른들 옆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며 성경 봉독시에는 자기차례를 기다려 성경을 읽었어요. 남편도 등록은 안해도 가끔 교회에 들러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이번에 서울교회로 옮기면서 전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등록하게 됐고 요즘은 남편이 먼저 교회에 가자고 챙긴답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문기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셔서 서울에 오시면 문기가 나오는 교회 행사에 참석하신답니다.



▶ 아들처럼 더 하실래요?

아이들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뿐 아니라 문기가 각종 대회에 나가 많은 수상을 해서 가슴이 뿌듯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 문기의 실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 서울교회에서의 소망은?

새 예배당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가족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며 교회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으로 믿게 되었지만 금강제화 기획실에 근무하는 남편이 신앙의 가장으로 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저도 믿음으로 잘 내조하여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찬양대나 교육부서에서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탐방 - 사랑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일 오후마다 예배당 앞에서 있는 하늘 색 승합차와 그 곳에서 내리는 해맑은 얼굴들을 유심히 보신 성도들이 계신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듯한 이들은 곧바로 1층 웨스트민스터 홀 바로 옆, 테이블실 건너편인 106호실로 모이는데, 이 곳이 바로 사랑부 쉼터이다. 우선 사랑부실에 들어서면 절로 탄성이 나온다. 사랑부 교사님들의 노란 유니폼이 그렇게 경쾌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고, 사랑부 학생들의 티없는 얼굴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작은 천국과도 같기 때문이다.

현재 사랑부(부장 이승우 집사)는 30여 분의 교사들이 봉사 중이시고, 7세로부터 41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이 50여 명 정도 된다.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1부 예배와 2부 분반공부 및 시청각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지체 장애, 정신 장애, 복합 장애 등 선천적인 장애를 겪는 학생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는 뒤늦게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장애를 얻은 이도 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도 있고, 자폐증을 앓는 이도 있으니, 이 곳은 작은 병동과도 같지만, 뛰놀며 예배드리는 이들을 보면 이 곳이 작은 천국임에는 틀림이 없다. 기자가 사랑부실에 들어선 때는 마침 찬양 시간이었는데,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고백이며, 덜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한 찬양이 깊은 은혜와 감동을 전한다"는 이성득 목사님의 자랑처럼 서울교회 어느 성가대 못지 않은 멋진 찬양이 인상적이었다. 정상인들이 건강하고 온전한 몸과정신을 가지고도 내면은 일그러지고 혼탁한 반면, 비록 부족하나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랑부원들이 음정과 박자로부터 자유로운(?) 찬양의 찬양을 들려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기도문 암송대회가 있었던 지난주에는,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이 기도가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간절하고 오묘한 기도였던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발음조차 어렵고 암송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랑부 학생들이 주기도문을 완독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오묘하심에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랑부 학생들이 스스로없이 "엄마"라고 부르는 김옥겸 집사님의 고백처럼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삶의 특별 게스트"가 아닌지. 차츰 그늘지고 소외받을 이들에게 사랑과 말씀으로 훈육하고 보살피는 사랑부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것을 감사드리며,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린다.

나소정 (편집부)



맑고 순수한 영혼들의 예배 - 주님 받아주세요.

봄비

사랑부 이승이(17세)

봄비는 조용조용하게 내린다. 창 밖을 바라보면 전깃줄에 이슬이 맺혀 있다.

친구와 나란히 걸어가면 바닥에 빗물이 툭툭 떨어지면 내 얼굴이 보인다.

엄마와 나랑 나란히 손잡고

집에 들어가다보면 빗물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 봄비는 슬픈 생각이나 괴로울 때 봄비는 쏟아진다.

사순절의 기도

성춘모 집사(10 교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문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확실한 목표 없이 허둥대고 있지는 않았었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뜻대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릴 수 있도록 수정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감사치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지만 기뻐하기 보다는 불만에 휩싸여 분노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 보다는 번쩍번쩍 빛나는 밤거리를 헤메기도 하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것들로 부터 육신의 평안을 찾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아니 주님은 언제나 주인이었는데 내가 손님인 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 하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을 주께 맡기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십자가 상에서도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롬 경로대학, 주부대학, 성경대학 개강박두

노년을 위한 살롬 경로대학, 주부를 위한 주부대학 등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성경대학이 4월과 함께 모두 문을 연다. 배우고 자라서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중 프로그램에 한 강좌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겠다. 등록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기를 본부측은 당부한다.

등정

- 이종혁 집사, 박은경 집사 (캐나다) 독남
■ 정윤돈 목사의 3인: 3월 30일 비전 2020 실천 운동 실무 담당자 교육 참석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조응식 집사, 유명석 권사 (4교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1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9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4.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일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Table with 3 columns: 구분 (Category), 시간 (Time), and details for various church services including weekly, monthly, and special services.

교회약도 만남대교 성수대교

